



겨레말 사람들

# 4인 4색, 우리 연구원들의 말



권혜진 | 박선영  
박샛별 | 고대영



## #고대영

편찬3부에서 근무하는 고대영 선임연구원. 그는 2011년 3월에 편찬사업회에 입사해 사전 원고 집필과 교열을 보고 있다. 또 남북의 의미 차이 등을 다루는 ‘붙임’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공동회의 시에는 ‘겨레말형태표기분과(구 단일어문규범분과)’를 맡아 겨레말의 형태 표기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겨레말형태표기분과’에서 개칭된 ‘종합분과’를 맡아 집필 및 공동집필회의 등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합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MBC <통일전망대>에 출연해 겨레말을 소개하고 있다. 그에게 즐거운 점은 문자 공동회의에서 북측 편찬원들과 만났던 일을 뽑았고, 반대로 힘든 점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오래 공전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 늘 앞으로 나가려고 쉬지 않고 걷고 있는데 그게 제자리걸음이라는 느낌이라까.

### 공동회의에서 기억나는 장면?

2008년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머물 때 대동강 다리를 건너 산책하다가 북측 보안 성원에게 붙잡혀 호텔로 들어왔던 일이다. 또 대동강 근처에서 우리 연구원들과 농구, 족구 등을 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 소개할 어휘는?

‘선생’ ‘에스키모’ ‘낙화생#락화생’이다. 북측은 ‘동무’ ‘동지’를 쓸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니 남북 모두 ‘선생’을 호칭으로 사용해 대화가 한결 편해졌다. 언어사용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예가 된 단어다. 예전에 ‘아이스크림’의 북측 순화어로 ‘얼음보숭이’가 알려졌다. 북에서는 외래어 특히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북에서 아이스크림을 ‘에스키모’라고 부르고 있었다. 끝으로 낙화생#락화생은 남북이 이전에는 쓰던 한자어로 남에서는 ‘땅콩’이 더 널리 쓰이고 북에서도 ‘땅콩’으로 순화하여 쓰도록 하였다. 한자어보다 고유어를 더 중요시하는 북의 언어정책 상 ‘땅콩’만 남았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락화생’도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이념에 기반한 관 주도의 언어정책의 한계와 언중의 자연적인 어휘 선택의 힘을 새삼 깨닫게 했다.

### 하고 싶은 말?

편찬사업회가 기구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확보하여 겨레의 말을 계속 모으고 가꾸고 연구하는 단체로 발돋움하길 바란다.

## #권혜진

편찬부에서 근무하는 권혜진 연구원. 초등시절 아버지의 국어대사전을 선물 받아서일까. 그는 국어국문학과에서 국어학을 전공했고 2008년에 입사한 편찬사업회가 첫 직장이 됐다. 그는 자연스럽게 ‘사전 편찬원’이 된 것을 ‘운명’이라고 믿는다. 예전 집필부에서는 집필, 교열·교정 등을 했고 현재 편찬부에서는 <겨레말큰사전>에서 정한 42개 전문어 영역과 해당 올림말을 검토하고 있다. 남과 북에서 전문어 영역이나 뜻풀이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전문어를 검토하여 전문어 영역을 확정하고 있다. 사전 속의 올림말과 그 뜻풀이, 그 외의 여러 '속구조' 정보들을 깊고 더하는 과정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때때로 희열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 공동회의에 기억나는 일은?

우리는 실내 금연으로 비흡연자를 배려하지만 북측은 그렇지 않다. 초기 공동회의를 진행하는 실내공간에서 흡연하는 분위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공동회의가 거듭될수록 북측 편찬원들도 남측의 실내 금연 문화를 이해하고 회의 시간에 거의 금연했다.

### 관심을 갖고 있는 올림말은?

사전 편찬원으로서 흥미롭게 봤던 올림말이 있다.

*우리 부부는 [직장세대로/맞벌이로], 나는 [직업부인이다/직업여성이다/워킹맘이다].*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가정'을 북측에서는 '직장세대', 남측에서는 '맞벌이 가정'이라고 한다. '결혼한 뒤에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를 북측에서는 '가정부인', 남측에서는 '전업주부'라고 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자'를 남측에서는 '직업여성', 북측에서는 '직업부인'이라고 한다.

또 최근 남측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자(엄마)'를 '워킹맘'이라고도 한다. 나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어휘들이라 최근에 관심 있게 보았다.

### 요즘 취미생활은?

점심시간을 아껴 동료와 함께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시작했는데, 피아노 연주곡 하나쯤은 멋지게 완성하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그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 #박삿별

전산팀에서 근무하는 박삿별 연구원. 2009년 편찬 사업회에 입사해 올해 10주년을 맞은 그는 새어휘부에서 집필 업무를 봤다. 그러다가 2015년 전산팀으로 자리를 옮겼고 '말망'에 구현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 《거레말큰사전》 원고를 관리하는 DB 정비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의 어휘 차이(표기, 의미, 규범-비규범 등의 차이)를 연구해 DB를 구축한다. 그는 공동회의를 매우 흥미롭고 즐거운 일로 뽑았다. 북측 편찬원들과 뜻풀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지만 좋은 뜻풀이가 나올 때면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 공동회의에서 기억나는 장면은?

처음 공동회의에 참석했을 때 북측에서 '삿별'이 그분을 의미한다고 해 이름을 못 부르는 것이 나냐고 우려했다. 그런데 막상 북측 편찬원들은 스스로없이 '삿별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평양에서 공동회의할 때 마침 생일이어서 북측 편찬원들에게 케이크와 꽃을 선물로 받았다. 무척 감동적인 일이었다.

## 어휘는?

최근 《조선말대사전》을 보다가 ‘가출’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측에서 흔히 쓰는 ‘가출’이 북측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나중에 공동회의가 재개돼 북측 편찬원을 만나면 그 이유를 묻고 싶다.

## #박선영

편찬2부에서 근무하는 박선영 연구원. 그는 2008년 편찬사업회에 입사했고 2007년 11월 연구용역을 하며 편찬사업회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연구용역을 하면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 까닭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겨레의 말을 모으는 위대한 과업에 동참하게 됐던 것. 그는 집필·교열뿐만 아니라 말뭉치부터 삽화까지 사전 편찬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왔다. 현재는 지역어 집필 및 교열, 지역어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 공동회의에서 인상적인 일은?

드라마 <파리의 연인>이 있다. 박신양, 김정은, 이동건 등의 배우가 출연했다. 남측과 북측 편찬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그 드라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내가 무심결에 “거기서 김정은이...”라고 내뱉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공동회의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금기어가 있는데 ‘한국’ ‘북한’ 등과 같은 단



사진 왼쪽부터 권혜진, 고대영, 박선훈, 박선영

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당연히 ‘김일성’ ‘김정일’ 등도 쓰면 곤란하다. 다행히 자연스럽게 무마하고 북측 편찬원들도 이해했지만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다.

## 어휘는?

최근 교열한 원고 중 고민을 많이 했던 어휘가 있는데 제주 지역어 ‘문짜(규범어 ‘문짜’이 아니다)’이다. ‘동형어’이면서 중의적인 단어는 난감하다. 더군다나 지역어라면 더 그렇고 특히 제주 지역어라면 더 괴로워진다.

## 특기와 취미는?

5개 국어를 알고 있으며 그중 일본어는 수준급이다. 편찬사업회 입사 전 통역·번역을 했다. 국어사전과 외국어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일본어, 중국어는 업무에 도움이 된다. 취미는 네일아트, 피아노 연주, 노래이다. 한때 가수가 꿈이었고 가끔 집 근처 코인노래방에 간다. 최근에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